

## 해외 취업 제안 - 연극 전공자 영국 취업의 길

글\_김준영(런던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연극 전공자들이 졸업 후 관련 산업에서 어렵게 직업을 찾는 것은 한국이나 영국이나 마찬가지다. 금수저가 아니라면 많은 경우 공연 예술가로서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스스로 그 꿈을 계속 실현해가는 단계는 언제나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런던 극장가 제작사에서 행정 일을 하는 젊은 직원들이나 공연 막간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어셔(Usher), 심지어 극장 매표소(Box Office)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그곳을 벗어나면 모두 작품을 만들고 꿈꾸는 젊은 공연 예술가들이다. 특히 배우를 전공한 사람들은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도 일하고, 또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기회를 기다리기도 한다.

경험상 연극 전공자들 가운데 단연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느 나라든지 배우는 여기저기 붙은 오디션 공고를 통해 고용되는 반면 배우 아닌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은 구인 광고조차 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환경에서 다행스럽게도 공연 산업이 집중된 런던의 시어터랜드(Theatreland)라 불리는 웨스트엔드(West End) 극장가 중심에서 20대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아주 컴팩트 한 공연계 행사가 있다. 런던극장협회(SOLT)와 극장주, 세계 최대의 공연 그룹인 앰배서더(Ambassador Theatre Group), 로얄오페라하우스(ROH), 공연제작사인 텔폰트 메킨토시(DMT), 그리고 세계 최대 공연 마케팅 업체인 AKA와 드윈터스(Dewynters)가 모여 작심하고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바로 '시어터 크래프트(Theatre Craft)'가 그것이다. 작가, 프로듀서, 연출, 마케팅 직원, 그리고 조명, 음향, 장치 디자이너를 포함하는 극장 스태프 등 다시 말하자면, "배우 말고 모든 분야" 들이 모여 직업을 찾는 박람회를 하는 것이다. 사실 2016년 본지 12월호 「세계연극」을 통해 일부 소개 했던 적이 있었으나 이번엔 다른 접근 즉, 우리의 젊은 연극인들에게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해외 취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의 젊은 연극인들이 매년 11월 런던에서 열리는 공연계 취업 박람회에 참가해 이력서를 내고 인터뷰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과연 가



개별 멘토링, 가끔 자연스럽게 면접으로 이어지기도 함

능할까? 만약 다음 두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영국 극장가에서의 취업을 꿈꿀 수 있다. 바로 노동비자와 영어 소통 능력이다.

먼저 비자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88서울올림픽 이후부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비자 면제협정을 맺어 여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 6개월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노동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 30세 미만의 연극 전공자들이라면 길이 있다. 바로 "영국 청년교류제도"라고 부르는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약칭 워홀) 비자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2012년부터 영국과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이하 YMS)를 시행해 매년 1,000명이 지원해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으니 새로운 정보는 아니다. 하지만 런던에 있으면서 수많은 "워홀러(워홀 뒤에 사람을 뜻하는 'er'을 붙여 한국에서 사용하는 말)"를 봐왔으나 공연 전공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방학기간에도 워크숍을 해야 하는 전공자들의 특성상 일반 학과와 비교해 이 같은 정보에 적극 노출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고 만 30세 이하라면 누구라도 가능하다.

## 1. 영국 청년단교류제도(YMS)

### ▶ 목 적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청년교류를 통한 양국의 우호 관계 증진 및 세계적 안목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

### ▶ 개 요

-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도전 등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뿐 아니라 자기계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 2년까지 영국에서의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

### ▶ 영국 YMS 신청 자격 조건

- 만 18세~만 30세 대한민국 국민
  - ※ YMS 비자 온라인 신청 및 결제 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1세 미만
- 영국 입국 후 초기 체류를 위한 경비를 가진 자
-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정부후원보증서(CoS)를 소지한 자
- 이전에 YMS 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자

### ▶ 2018년도 영국 YMS 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1) 정부후원보증서(CoS) 신청 및 수령 (우리나라 외교부 주관)
  - ※ CoS 발급대상자만 영국 YMS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2) 영국 YMS 비자 신청 (영국 정부 주관)
  - 1단계: YMS 비자 온라인 신청 및 비자 수수료/보건부담금 결제
  - 2단계: 결핵 검사 (한국 내 지정병원에서만 가능)
  - 3단계: 한국 내 영국비자지원센터 방문 (구비서류 지참)

## 2. 정부후원보증서(CoS) 신청 및 발급 안내(우리나라 외교부 주관)

### ▶ 발급 인원 : 1,000명

### ▶ 신청 자격 조건

- 만 18세~만 30세 대한민국 국민
  - ※ YMS 비자 온라인 신청 및 결제 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1세 미만
- 한국 내 범죄경력이 없는 자

2018년도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참가 안내(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영어 실력이다. 과거의 잣대로 생각해보면 타 학과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도서관이나 학원에서 회화나 토익을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고 예술 전공 학생들은 실기를 연마하기 위해 외국어 학습의 기회가 적었던 것이 인정된다. 하지만 요즘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연극 전공자들이 차고 넘친다. 지난해름 에든버러 축제에서 인턴십 참가를 위해 원격 인터뷰를 진행했던 영국 현지의 한 극장 관계자는 “한국의 공연 전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놀랐다”는 표현을 남겼다.

영국에서 가장 큰 공연 취업 박람회인 시어터 크래프트의 특징은 현지 종사자들이 직접 한자리에 모여 안내테스트를 설치하고 이 분야에 관



박람회장 모습



안내데스크

심을 가진 젊은이들을 현장에서 만나 이들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풀어 주고 관련 워크숍을 통해 관심 분야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쉽게 펼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다. (향후 우리 공연계에서도 충분히 기획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먼저 런던 극장가에 위치한 귀족풍의 5성 힐튼(Waldorf Hilton)호텔과 주변 극장들은 장소를 제공했다. 다음으로 여러 분야의 공연계 인사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산업에 필수적인 인재를 조기에 개발하고 기회를 나누는 것은 바로 “지금의 영국 공연계가 내일의 공연 제작 세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인지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시어터 크래프트는 지난 13년을 거쳐오는 동안 수많은 워크숍을 통해 영국의 젊은 세대에게 공연산업과 관련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준 훌륭한 소스가 됨을 증명해 왔다.

연극 전공 학생들이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이 같은 박람회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제는 우리 한국의 연극계도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사진 필자 제공